

‘연패 도전’ 호랑이 군단, 선발진에 기대감 증폭

한화 상대 1-4 역전패 불구
외인 원투펀치 위력투 눈길
네일 실점에도 2이닝 5삼진
올리는 2이닝 퍼펙트 투구
양현종도 컨디션 관리 시작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호랑이 군단이 실전 모드 돌입 후 두 경기 연속 역전패를

내주는 아쉬움을 안았지만 선발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연습경기를 소화한 윤영철과 김도현에 이어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 아담 올러도 개막 준비에 청신호를 켜었다.

KIA타이거즈는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2차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1-4로 역전패했다. 연습경기 결과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KIA는 실전 모드 전환 이후 두 경기를 모두 역전패했다.

이날 역전패에도 KIA 선발진은 순조롭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네일이 가장 먼저 등판해 2이닝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쳤고, 양현종이 2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러가 2이닝 퍼펙트 투구를 펼치며 위력을 과시했다.

네일은 1회초 선두타자 이진영에게 안타를 내준 뒤 임종찬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으나 에스테반 플로리얼에게 2루타를



KIA타이거즈 아담 올러가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2차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맞으며 1사 1·3루에 몰렸다. 하지만 노시환을 삼진, 채은성을 플라이로 처리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이어 2회초에는 선두타자 안치홍에게 2루타를 내준 뒤 권광민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이재원에게 2루타를 맞으며 실점했고, 심우준에게도 2루타를 허용하며 1사 2·3루 위기를 맞았으나 이진영과 임

종찬을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네일은 5개의 피안타에도 2이닝을 27구로 소화했다. 무사사구로 탈삼진만 5개를 슈아냈고 직구와 투심, 커브, 체인지업, 스위퍼를 고루 점검하며 최고 구속은 150km를 찍었다.

네일에게 마운드를 이어받은 양현종은 3회초 플로리얼과 노시환을 삼진으로 잡

아냈으나 채은성과 안치홍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사 1·2루 위기를 맞았고, 권광민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4회초 이재원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심우준의 땅볼에 3루수 박민의 포구 실책이 나오며 무사 1·2루가 됐고 이진영을 뜬공, 이원석을 삼진으로 처리했으나

플로리얼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주자 두 명이 모두 홈을 밟은 뒤 노시환을 삼진으로 잡으며 수비를 끝냈다.

양현종은 4피안타와 1볼넷을 내주며 40구를 던졌지만 5개의 탈삼진을 챙겼다.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최고 구속은 141km를 기록했다.

네일, 양현종과 함께 올러도 기용되며 상위 선발진 후보 세 명이 모두 마운드에 올랐다. 올러는 5회초 채은성을 뜬공, 안치홍을 땅볼, 심우준을 삼진으로 처리한 뒤 6회초 이재원을 땅볼, 심우준을 삼진, 이진영을 파울 플라이로 잡아냈다.

올러가 2이닝을 퍼펙트로 틀어막는 데는 단 21구만 필요했다.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스위퍼를 고루 구사했고 최고 구속은 153km에 이르렀다. 두 차례 연습경기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였다.

경기 후반에는 임기영과 조상우, 정해영이 1이닝씩을 소화하며 경기를 마쳤다. 임기영은 피안타 네 개를 내주며 1실점했고 조상우와 정해영은 나란히 두 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실점하지는 않았다.

타선에서는 홍종표와 윤도현이 빛났다.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한 홍종표는 두 경기 연속으로 팀에서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생산했고, 3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기용된 윤도현은 1회말 무사 1·2루에서 적시타를 때리며 선취점을 책임졌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왼쪽부터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오늘 결정난다

오후 6시 전후 당선 윤곽 전망
정몽규·신문선·허정무 3파전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등 세 명의 후보가 자격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 축구의 위기를 타개할 임무를 누가 맡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다목적 회의실에서 회장 선거를 개최한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각자 10분간 소견 발표를 진행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후 4시50분부터 6시까지 상위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설립 이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A대표팀은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카타르에서 준결승 진출에 그치고, U-23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무산

되는 등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은 외부적으로는 민심을 회복하고 내부에서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책을 맡는다.

정몽규 후보는 국민 소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국민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대한축구협회 총회 및 이사회 참여, 상장 기업 수준 경영 공시 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신 후보는 “재벌 회장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신으로 도전한다”며 “정몽규 후보의 낙선이 개혁과 변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축구협회를 대한축구연맹으로 전환 후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허 후보도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축구 협회를 만들겠다”며 “한국 축구가 세계로 나아갈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바꿀 것은 바꾸고 키울 것은 키워서 협회다운 협회와 축구다운 축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전남드래곤즈 김용환·최봉진, K리그2 1라운드 베스트 11

천안시티FC와 올 시즌 개막전에서 무실점의 완벽한 승리를 견인한 전남드래곤즈 김용환과 최봉진이 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2 2025 1라운드 베스트 11 수비수와 골키퍼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22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과 올 시즌 개막전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전남은 올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김현석 감독도 데뷔전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김 감독이 이날 경기에서 5-3-2 포메이션을 가동한 가운데 파이프백의 좌측면에 선발 투입된 김용환은 폴타임을 소화하며 맹활약했다. 적극적인 공격 가담에 선보인 김용환은 전반 5분 김예성의 크로스를 머리로 마무리하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책임졌다. 뿐만 아니라 탄탄한 수비로 무실점을 이끌었다.

최봉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훈감이



전남드래곤즈 최봉진이 지난 22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티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개막전에서 상대의 두 차례 페널티킥을 모두 막아낸 뒤 포효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었다. 전반 29분 김예성이 페널티킥을 내주자 이정협이 슈팅을 중심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손끝으로 쳐냈고, 골라인에서

발이 떨어지며 리테이크가 선언됐으나 다시 한 번 방향을 완벽히 읽으며 골문을 지켜냈다.

한규빈 기자

홍명보호 3월 A매치, 오만전 고양·요르단전 수원 개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홍명보호가 안방에서 열리는 3월 A매치를 모두 수도권에서 치른다.

오만전은 고양, 요르단전은 수원에서 개최해 3차 예선 선두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음달 20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을 치른 뒤 25일

같은 시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8차전을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A매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9월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베트남과 친선경기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A매치가 개최된다.

3차 예선을 치르고 있는 홍명보호는 4승 2무(승점 14)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B조 선두를 독주하고 있다.

각 조 1~2위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만큼 이번 수도권 2연전 결과에 따라 조기 확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중요한 경기인 만큼 늦겨울 추위가 길어진 천연 잔디 상태를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며 “오만전과 요르단전을 각각 고양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